

광주 OK 웃맨 럭비단 “낮에는 금융인 퇴근하면 럭비선수”

넷플릭스 ‘최강럭비’ 출연... 치열한 경기 선보이며 시청자에 눈도장

직장인으로서 일과를 마친 후, 그라운드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이 있다. 바로 광주를 연고로 하는 럭비단, 'OK금융그룹 웃맨 럭비단' 선수들이다.

낮에는 금융인으로 일하고 새벽과 일과 후, 주말엔 럭비선수로 활동하는 이 팀은 '신진국형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팀'을 모토로 삼고 있다.

럭비는 최근 넷플릭스의 스포츠 서바이벌 예능 '최강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와 올해 방영 예정인 SBS 럭비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비인기 종목'에서 점차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OK 웃맨 럭비단 역시 '최강럭비'에서 치열한 경기를 선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지난달 31일 공개된 12화에서 OK 웃맨 럭

비단은 포스코에너지와의 4강 2경기에서 38-36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감격의 순간을 연출했다.

경기 막바지, 31-36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이용운이 동점 트라이를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피나우에서 란스로 이어지는 패스를 받은 그는 인골 라인을 향해 전력질주해 트라이로 5점을 추가했다. 이어 한구민이 컨버전 킥을 성공시키며 OK 웃맨 럭비단은 결승에 진출했다. 창단 후 프로팀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이자 값진 결과였다. OK 웃맨 럭비단의 결승 상대는 한국전력공사로, 두 팀의 대결은 오는 7일 공개될 예정이다.

OK 웃맨 럭비단은 럭비 선수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경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OK금융그룹은 2016년부터 럭비 선수 특별채용

을 시작해 2023년 3월, 공식적으로 OK 웃맨 럭비단을 창단했다. 팀의 초대 감독인 오영길 감독은 영화 '60만번의 트라이'의 실제 주인공으로, 일본 오사카조신고급학교 럭비팀 감독, NTT도코모럭비오사카 아카데미 육성 코치, 그리고 대한민국 7인제 럭비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베테랑 지도자다.

OK 웃맨 럭비단은 창단 초기임에도 베테랑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는다.

럭비는 전진만을 목표로 하는 격렬한 스포츠다. 득점을 의미하는 '트라이'는 공격 선수가 수비를 뚫고 인골 지역에 공을 바닥에 찍어야 5점이 인정된다. '스크럼'에서는 각 팀 8명의 선수가 힘과 기술로 상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팀워크를 시험한다.

OK금융그룹 웃맨 럭비단은 단순히 경기에만 그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감독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2025년을 맞아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역사가 기대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최강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 방송 화면.

<넷플릭스 홈페이지>

‘포스팅 마감 D-1’ 김혜성, ML 2~3개 구단서 관심

샌디에이고 등 계약 가능성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김혜성(25·키움 히어로즈)에게 ‘운명의 이빨’이 시작됐다.

지난달 5일 MLB 사무국이 포스팅 공시한 김혜성의 계약 마감 시한은 한국시간 4일 오전 7시다. 이 시간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이번 시즌 포스팅은 종료되며, 내년 11월 1일까지 다시 포스팅할 수 없다.

2024시즌으로 포스팅 요청에 필요한 'KBO리그 7시즌' 자격을 채운 김혜성은 소속팀 키움의 동의를 구해 MLB 진출 도전을 공식화했다.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소속사 CAA스포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김혜성은 지난해 11월 말 출국했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현재는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 중이다.

김혜성의 포스팅 소식에 미국 현지 역시 작지 않

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이적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만큼은 아니더라도, 김혜성(FA)의 성공 사례 덕분에 '4년 연속 KBO 골든글러브 수상자' 김혜성도 '에비 빅리거'로 대접받았다.

'MLB트레이드머무스'는 김혜성을 이번 스토브리그 FA 랭킹 26위로 매겼고, 영입을 검토한다는 10개 가까운 구단의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팅 시장에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어도 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김혜성의 장점은 KBO리그 통산 타율 0.304에 이르는 콘택트 능력과 211개의 도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빠른 발이다.

이러한 장점은 빅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통산 37홈런에 그친 장타력과 2루가 주 포지션인 점은 순조로운 계약을 가로막는 요소다.

김혜성은 지난달 귀국 당시 내년을 기약하고 국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과 달리,

계약 제의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 표명'은 10개 구단이 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제안'을 한 구단은 2~3개 구단 정도다.

송재우 MLB 해설위원은 "제안은 분명히 있고, 문제는 조건이다.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조건일 것"이라며 "처음부터 괜찮은 조건이 있었다면 계약이 빠르게 됐을 것이다. 결국 김혜성의 선택에 달렸고, 공은 김혜성에게 돌아간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성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도, 4년 전 김혜성이 샌디에이고와 계약할 당시 사인한 4년 총액 2800만달러 규모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송 위원은 샌프란시스코 역시 김혜성 영입을 시도할 만하다면서 "사장과 단장이 모두 바뀌고 공격적으로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지만, 원하는 선수를 못 데려오고 있다. 2루수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어서 김혜성에게 관심을 보일 구단 가운데 하나"라고 짚었다.

/연합뉴스

“소통 강화’ 신뢰받는 광주체육회 만들 것”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신년사

광주시체육회 전갑수(사진)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깊은 위로와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지역 체육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전 회장은 “일상 속 스포츠를 기회로, 신뢰받는 체육 행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국체전 성적 향상 ▲생활체육 참여 확대 ▲공정한 체육 행정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4대 목표로 삼아 시민이 건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회장은 “지역 체육계의 큰 과업인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설명회를 열어 광주체육회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오는 9월에 열리는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 체육인들의 역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도 강조했다.

전국체전 성적 향상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더 많은 메달과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 선수와 지도자 배치, 과학적 훈련 지원 등을 통해 광주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어르신부터 청소년, 다문화 가정까지 모두가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전 회장은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약속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광장을 확대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운영 방식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한 체육행정을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서는 ‘종목단체, 선수, 동호인, 지도자, 임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았다.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이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노후 시설의 개보수와 프로 스포츠 관람 편의 증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민선 2기 3년 차를 맞이하며 지역 체육인들의 지혜를 모아 체육 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피겨 차준환·김채연·이해인, 밀라노 향해 첫 발 떼다

4일 국가대표 2차 선발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향한 첫 판전이 열린다.

남자 싱글 차준환(고려대), 여자 싱글 김채연(수리고), 이해인(고려대) 등 한국 피겨스케이팅 간판급 선수들은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의정부빙상장에서 열리는 제79회 전국남녀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이번 대회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 뒤 2025-2026시즌에 뛠 새 국가대표를 뽑는다.

1차 대회 남자 싱글에선 차준환이 264.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민규(경신고·244.23점), 이시형(고려대·240.66점)이 뒤를 이었다.

여자 싱글에선 김채연이 213.51점으로 1위, 신지아(세화여고·203.68점)가 2위, 김유성(평촌중·199.11점)이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남자 싱글 1, 2위, 여자 싱글 1, 2, 3위, 아이스댄스 1위, 페어스케이팅 1위를 거둔 선

수 혹은 팀은 올해 3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티켓을 획득한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별 쿼터가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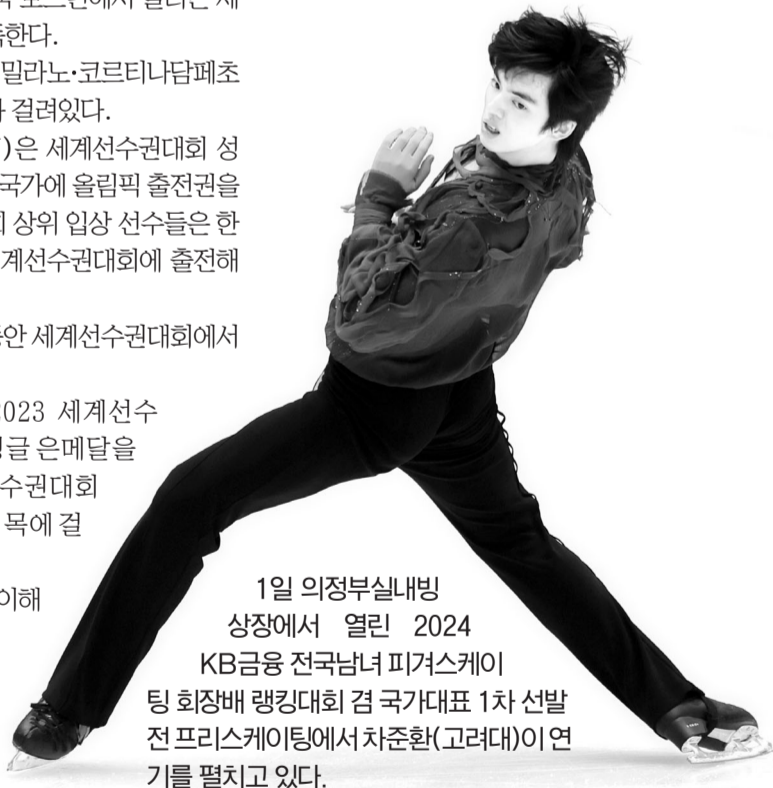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에 따라 각 선수의 소속 국가에 올림픽 출전권을 배분한다. 종합선수권대회 상위 입상 선수들은 한국 피겨의 명운을 걸고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야 한다.

한국 피겨는 최근 2년 동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차준환과 이해인은 2023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남녀 싱글 은메달을 획득했고,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선 김채연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차준환은 지난해 10위, 이해인은 6위에 올랐다.

세 선수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과 입상에 다시 도전한다. /연합뉴스



1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4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 피겨스케이팅에서 차준환(고려대)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 대한항공 떠난 막심 영입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한쪽 공격 날개를 블라니미르 그로즈다노프(30·등록명 그로즈다노프)에서 막심 지갈로프(35·등록명 막심)로 교체하고 4라운드 들어간다.

삼성화재 구단은 2일 기존 외국인 선수인 그로즈다노프와 결별하고 막심 영입을 확정했다.

막심은 지난 2023-2024시즌 챔피언결정전을 앞두고 단기 계약에 대한항공의 우승을 견인했다.

이번 시즌에는 대한항공 외국인 선수인 요스바니 에르난데스(33·등록명 요스바니)가 시즌 초 이

깨 회전근개 파열로 이탈하면서 대체 선수로 다시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었다.

막심은 올 시즌 12경기에서 276점, 공격 성공률 47.71%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다.

대한항공은 마지막까지 ‘팔방미인’ 막심과 공격력에 강점이 있는 요스바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요스바니를 남은 시즌 외국인 선수로 낙점했다.

기존 외국인 공격수 그로즈다노프의 허약한 공격력에 낙점점을 준 5위 삼성화재는 막심 영입으로 후반기 반전을 노린다. /연합뉴스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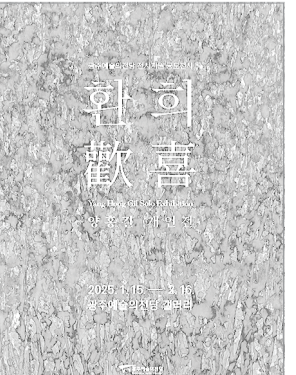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